

실감난 재현·화려한 볼거리 ... 2011 명랑대첩축제 폐막

# 더 커진 스케일 ... 36만명 몰렸다

### 주민 참여형 지역 대표축제 자리매김 명나라 도독 진린 장군 14대손도 참석

“2011 명랑대첩축제”가 2일 36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데, 414년 전 명랑해전 승리를 실감나게 재현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로 지역 대표 축제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저한 고증, 화려한 볼거리= ‘승리의 바다 울돌목’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명랑해전 재현’ 행사.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수장시킨 장면을 울돌목 바다 위에서 재현한 행사는 역사성과 사실성이 더해진다. 스케일도 커지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전남도는 이번 해전 재현을 위해 실제 관옥선 2척을 만들고 일반 관옥선 13척을 투입했고 주민 1000명

이 참여해 왜선 133척과 벌이는 완성도 높은 대규모 해상전투 장면을 연출했다. 작년 행사 때부터 등장한 관옥선은 축제가 시작되기 직전과 해전재현에서 연기를 피우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관옥선은 414년 전인 1597년 음력 9월16일, 이순신 장군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 일본 수군 133척을 궤멸한 주력선으로, 나무판자로 갑판 위에 집을 꾸민 160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이날 재현 행사에서는 당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 장군의 14대손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진방식(77)씨가 참석, 주목을 받았다.

명랑대첩 원혼들을 기리는 위령 씻김굿과 함께 펼쳐진 만가·만장행렬에도 500명이 넘는 진도군민과 조선수병, 민초의병, 일본수병의



2일 해남 우수영에서 열린 명랑대첩축제에 참석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 장군의 14대손 진방식(77)씨.

후손 및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8대의 만가와 만장 500여기로 진도 대교와 인근 도로 2km를 가득 메워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로 성장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지역 문화와 접목을 시도하는 등 대표적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명랑해전 재현을 비롯해 명랑해전으로 죽은 원혼을 만가 8대에 안치해 행진하면서 펼쳐지는 ‘명화의 진혼곡·위령씻김굿’행사 등의 주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만 줄잡아 8000명이 넘는다.

이외 해남·진도 주민들이 출연하는 21가지 마당놀이와 지역 풍물놀이, 비빔, 역사재현 프로그램으로 명랑대첩 승리의 주역인 민초들의 구국정신을 되새기는 약무호남입성식, 군세(軍勢)를 크게 보이기 위해 위장한 야죽불, 강강술래 등의 행사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양복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지역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사랑해요” 김항식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후(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숙소호텔을 방문한 K-POP 한류 청소년 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항식 총리 취임 1주년

## “괜찮았던 총리로 평가받고 싶다”

#### “대통령 측근 비리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

“소박하게 ‘아 김총리, 괜찮았던 총리’ 이 정도로 평가받으면 좋겠다.” 중·동유럽 2개국을 순방 중인 김항식 국무총리에게 취임 1주년(10월1일)을 앞두고 “한마디로 어떤 총리로 불리고 싶은가”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작년 8월 정운찬 전 총리 사퇴, 9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전격 발탁된 김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등 오랜 공직 생활을 기반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보여며 조기 안착했다.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건 김 총리는 정부 수립 후 첫 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대한 역할도 기대됐다.

실제로 김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련의 갈등 사안을 큰 대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무난하게 처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총리실에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정전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등 각종 사안의 해법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 총리는 지난 2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와 레이덕 우려에 대해서는 “비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문재인 ‘북콘서트’ 전국 투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판기념회 형식을 띤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재개한다. 이 같은 행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캠프 참여 여부와 맞물려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 이사장은 지난 1일 대전, 2일 전주에 이어 7일 춘천, 11일 울산, 15일 대구에서 저서 ‘문재인인의 운명’ 출간 기념 북콘서트 전국 투어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김기식 내각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나와 대담 등을 진행한다.

북콘서트 전국 투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대

합 추진기구인 ‘혁신과통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갖는다

북콘서트에 혁신과통합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행사 전에 혁신과통합에 동의하는 지역인사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문 이사장은 혁신과통합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 이사장 측은 2일 “서울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강했다”며 “북콘서트 대담은 대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대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정일 손자 추정 김한솔 페이스북 비공개로 바뀌

#### 보도 확산되자 부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로 추정되는 김한솔(16)이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일반인의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1일 오전 9시 현재 보스니아의 국제학교인 유니타르월드칼리지 모스타르 분교(UWGIM)에 등록된 ‘HanSol Kim’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면 사진, 댓글 등에 접근할 수 없고 자물쇠 표시와 함께 ‘일부 정보만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쓰인 안내글을 볼 수 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 김한솔의 프로필 사진 9장뿐 아니라 김철(필명 ‘Kim Chol’) 등과 안부를 주고받은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한솔이 언제 페이스북에서 일반



인 접근을 막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날 자신에 대한 보도가 확산하자 부담을 느껴 페이스북 정보를 지인들과만 공유하기로 설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스니아 현지 일간지 베체르 지리스트는 지난달 28일 UWGIM에 등록된 김한솔의 아버지가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라고 보도했고 지난 30일에는 그의 페이스북이 언론에 소개됐다. /연합뉴스

## 與, 소득 구분없는 무상급식 전향 검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소득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2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오세훈안’에서 더 나아가 소득 구분없이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과 조율해야겠지만 후보 측이 제시하는 방안이 미흡하면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TF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방향

은 ‘3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회진출 이전 복지정책으로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되는 3~4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70%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0~5세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TF는 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태우 前 대통령 동생에 주식 배당금 37억원 추징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에게 말간 비자금 중 일부가 국고로 귀속됐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말간 대여금 채권 120억원 가운데 노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 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1997년 추징금 2628억여원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비자금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 노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극락전 남골당

###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인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후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嚴樂祭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